

## 조선시대 과두(裹肚)에 관한 연구

송 미 경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전임강사

### A Study of *Gwa-du* (裹肚) in the Joseon Dynasty

Mi-Kyung Song

Full-time Instructor, Dep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투고일: 2009. 10. 13, 심사(수정)일: 2009. 11. 3, 게재확정일: 2009. 11. 17)

#### ABSTRACT

*Gwa-du*(裹肚), name of a garment, appears often from documentary records of *Joseon* Dynasty. It is assumed as one of the upper garments for men, and according to the record, it was worn as a set with *Dan-ryung*(團領), *Dap-ho*(搭胡), *Chul-rik*(帖裏), *Han-sam*(汗衫), pants and socks.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the 17th century, it changes to a shape of wrapping clothes with straps at four corners, and used to cover the stomach of a corpse like sash. From 16th-17th century, before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the excavated costume shows a clothing which takes a role of *Jegori*, longer than *Han-sam*(汗衫) and shorter than *Po*(袍). In this study, this clothing is called *Gwa-du*(裹肚). This study examined the usage and shape of *Kwa-du* from some documentary records- 『朝鮮王朝實錄-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禮書- Book of Manners』, 『宮中件記- *Googjoonghalkee*, recording court goods and commodities lists』 and more with actual clothing. *Kwa-du* is presumed to have changed to men's *Jegori* or *So-chang-ui*(小褌衣) after 17th century.

Key words: *Joseon* dynasty period(조선시대), men's upper garment(남자 상의), under clothes(속옷), *Gwa-du*(과두),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조선왕조실록)

## I. 서론

과두(褰肚)는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문헌에 자주 등장하는 복식으로, 유희경<sup>1)</sup>, 유송옥<sup>2)</sup>, 박성실<sup>3)</sup>, 송미경<sup>4)</sup>, 이은주<sup>5)</sup>, 황유선<sup>6)</sup>, 정말숙<sup>7)</sup> 등의 선행연구에서 일부 논의된 바 있다. 과두라는 복식은 조선시대 초기의 남자 상의(上衣)인 저고리로서 '과두'가 있고, 조선시대 후기의 상례(喪禮)시 시신의 배를 감싸는 네 귀퉁이에 끈이 달린 보자기와 같은 습구(襲具)로서의 '과두'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전기의 문헌에 있는 과두의 용도와 소재를 통하여 과두의 형태를 추정하여 '과두(褰肚)'를 정의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먼저 조선시대 문헌에 등장하는 과두의 기록을 『조선왕조실록』, 『의궤(儀軌)』, 『탁지정례』, 『국혼정례』, 『상방정례』, 예서(禮書), 궁중발기(宮中件記) 등의 문헌에서 찾아본다. 그리고 1979년 이후 학계에 보고된 1500년대부터 1600년대 분묘에서 발굴된 출토복식 가운데 12건 19점의 과두를 보고서들 통해 조사한 후 문헌과 유물을 비교하였다. 1600년대로 한정된 것은 17세기 초·중기 이후에 과두는 소장의나 남자저고리 대체되기 때문이다. 이를 종합하여, 과두의 용도, 소재, 착용 시기, 형태의 변화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제한점은 모든 유물을 직접 관찰하지 못하여 발표된 출토복식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자세한 정보가 미비한 것이다.

## II. 문헌에 나타난 과두

조선시대 문헌에 과두가 처음 등장한 것은 『세종실록』권134 '오례의'에 상례에서 왕의 습의(襲衣)와 사서인(士庶人)의 습의(襲衣)에 등장한다. 이 장에서는 조선시대 문헌 가운데 과두가 기록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 의궤(儀軌), 예서(禮書), 궁중발기(宮中件記)을 중심으로 '과두'의 용도와 형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 과두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과두는 세종, 단종, 세조, 성종, 연산군, 중종, 선조 대에 기록되어 있어 총 37건 43회이다.

『세종실록』오례의에 기록되어 있는 과두는 1건으로 왕의 습의(襲衣)로부터 사서인(士庶人)의 습의(襲衣)의 한 가지로 원령(圓領), 답호(搭胡), 첩릭(帖裏), 과두(褰肚), 한삼(汗衫)의 일습(一襲)이다. 『단종실록』에는 5건 7회에 기록되어 있는데, 명나라 사신 김유, 김홍에게, 그리고 후일 세조가 된 이유(李瑄)에게 하사하였다. 옷감은 백초와 백주가 사용되었고 겹과두의 표기도 있다.<sup>8)</sup> 『세조실록』에는 10건 11회가 기록되어 있고, 명나라 사신에게 하사한 것이 4건, 그 외는 변방에 나가있는 신하에게 하사한 것이 3건 3회, 혼인을 하는 종친 귀성군 이준에게 하사한 것이 1건 1회가 있다.<sup>9)</sup> 『성종실록』에는 12건 14회의 기록 중 중국사신에게 하사한 1건이 있고, 그 외는 모두 신하들에게 하사한 것이다.<sup>10)</sup> 『연산군일기』에는 4건 4회의 기록이 있는데 2건은 신하에게 하사한 것과 기타 1건이다.<sup>11)</sup> 『중종실록』에는 5건 6회의 기록으로 4건은 신하에게 하사한 것과 기타 1건이다.<sup>12)</sup> 『선조실록』에는 1건의 기록으로 『오례의(五禮儀)』를 언급하였다.<sup>13)</sup>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과두의 옷감은 백초(白綃), 주(紬), 백주(白紬), 백면주(白綿紬), 백색면주(白絲綿紬), 정주(鼎紬), 면주(綿紬)로 흰색이나 소색(素色)의 소박한 옷감이 소재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1> 가장 많이 사용된 소재는 주(紬)로서 백주(白紬)와 주(紬)를 합쳐서 61%이며 다른 소재들도 모두 평직의 주 종류이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과두의 구성은 <표 2>로 나타내었고 이를 살펴보면 겹(袂)과 유(襦)로서 솜을 둔 유과두(襦褰肚)가 78.7%이다. 특이한 것은 과두의 안감으로 가죽이나 호피 등의 모피를 사용한 것이다. 성종 5년(1474) 12월 16일의 기록으로 월산대군 이정(李婷)에게 하사한 과두는 '서피내공(鼠皮內供)<sup>14)</sup>을, 중종 20년(1525) 10월 14일에는 3도(道) 절도사에게 내릴 백주과두(白紬褰肚)의 안감으로 여우가죽이 없어서 안을 넣지 못한다는 기사<sup>15)</sup>가 있다.

〈표 1〉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과두의 소재

직물 \ 왕	세종	단종	세조	성종	연산군	중종	선조	계
백초(白綯)	-	5	1	1	-	-	1	8
주(紬)	-	1	-	10	-	-	-	11
백주(白紬)	-	1	5	2	1	2	-	11
백면주(白綿紬)	-	-	2	-	-	-	-	2
백사면주(白絲綿紬)	-	-	1	-	-	-	-	1
정주(鼎紬)	-	-	-	-	1	-	-	1
면주(綿紬)	-	-	1	1	-	-	-	2
계	0	7	10	14	2	2	1	36

〈표 2〉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과두의 구성

구성 \ 왕	세종	단종	세조	성종	연산군	중종	선조	계
겹(袂)	-	2	5	-	-	-	-	7
유(繻)	-	-	7	11	6	2	-	26
계	0	2	12	11	6	2	0	33

그리고 중종 34년(1539) 4월 25일에 백유과두(白襦裹肚)의 안감으로 호피로 안을 받친 과두의 기사<sup>16)</sup>로 보아 안감으로 가죽종류가 사용되었던 것도 알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과두에 끈이어 등장하는 복식은 ‘한삼(汗衫)’이나 ‘삼아(衫兒)’이다. 문맥상으로 보아 ‘한삼’이나 ‘삼아’는 속옷으로 가장 속에 입는 옷으로 추정할 수 있고, 과두는 삼아 위에 입는 저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삼과 과두가 함께 기록된 것은 단종 즉위년(1452) 10월4일 백초과두 2령과 한삼을 김유에게 하사<sup>17)</sup>한 것과 연산군 10년(1504) 4월9일 기사에 이세좌(李世佐, 1445-1504)<sup>18)</sup>가 자결한 일이 기록<sup>19)</sup>되어 있다.

왕이 묻기를, “세좌가 무슨 옷을 입었더니?”하매, 처적이 아뢰기를, “세좌가 한삼(汗衫)과두(裹肚)와 감다색(紺茶色) 짙어진 칠릭에다 위에 흰 베옷을 입었으며, 초립을 쓰고 녹피화(鹿皮鞋)를 신고 겹고 가는 띠를 띠었는데, 목을 벨 때 흰 옷과 한삼을 풀고 갓과 띠를 끌르고 죽었습니다.”하였다.<sup>20)</sup>

이 기사를 참고하면 한삼 위에 과두, 칠릭이 평상복의 일습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과두가 남자의 외출용 겉옷이 아닌 평상용

속옷인 것은 중종 16년(1521) 4월11일 기사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종익(李宗翼)의 사건(事干)에 대해 금부(禁府)에 물었더니 금부에서 말하기를 ‘이종익의 공초(供招)에 『외출했다가 아침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 곤양수(昆陽守)가 과두만 입고 망건은 벗은 채 유씨(柳氏)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화통이 터져 비자(婢子)를 불러 탕주(湯酒)를 내오라 했더니, 비자 윤정 등 2인이 부엌에서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또 유씨에게 어제 저녁 누구하고 갔느냐고 물어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 옆에 있던 곤양수가, 어젯밤에 유기종(柳起宗)과 추자아를 두다가 밤이 늦어 같이 잤지만 아침에 즉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하였다. 그래서 부득이 이 사람들을 추문하고 있다.’ 했습니다.”<sup>21)</sup>

## 2. 예서(禮書)에 보이는 과두

과두는 임금이 명나라 사신이나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조선왕조실록』에서 기록되어 있으나, 조선시대 예서(禮書)에서는 남자의 습구(襲具)로 사용된 경우에서 찾을 수 있다. 〈표 3〉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예서에 나타난 남자의 습구이다.

『국조오례의』에서는 남자의 습구로 단령, 답호, 칠릭, 과두, 한삼의 일습<sup>22)</sup>을 상의로 제시하였으며 이

〈표 3〉 조선시대 예서에 나타난 남자 습구(襲具)

책어름(발간연대)	남자의 습구
국조오례의(1477)	大帶, 黑圓領, 褶複, 帖裏, 裹肚, 汗衫, 袴, 襪, 網巾, 幅巾, 充耳, 暝目, 握手, 履
상례비요(1621)	大帶, 深衣, 裳, 圓袂, 方領, 黑緣, 褶護, 裹肚, 袍, 襖, 汗衫, 袴, 單袴, 勒帛, 襪, 網巾, 幅巾, 暝目, 充耳, 握手, 履, 冒
가례집람(1632)	大帶, 黑圓領, 深衣, 褶護, 帖裏, 裹肚, 汗衫, 袴, 襪, 網巾, 幅巾, 暝目, 握手, 履, 冒
가례언해(1632)	幅巾, 充耳, 暝目, 握手, 深衣, 大帶, 履, 袍, 襖, 汗衫, 袴, 襪, 勒帛, 裹肚
사례편람(1746)	幅巾, 網巾, 深衣, 團領, 褶護, 直領, 帶, 裹肚, 袍(如俗中赤莫, 冬衣) 汗衫(俗稱的衫), 袴, 單袴, 小帶(俗稱腰帶), 勒帛, 履, 充耳, 暝目, 握手, 襪, 冒
사례의절(1942)	大帶, 深衣, 中赤莫, 袍襖(俗稱冬衣), 單衫, 袴, 襪, 端褶, 勒帛(俗稱行纏), 網巾, 幅巾, 履, 條帶, 裹肚, 充耳, 暝目, 握手, 暝巾, 雪綿

와 같은 남자의 일습은 남자의 평상복으로 또는 명나라 사신에게 하사하는 일습으로 조선시대 전기에 수회에 걸쳐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가례집람』에서는 과두는 그 당시의 발음으로 ‘과도’이며 이암 송인(宋寅, 1516-1584)의 말을 인용하여 ‘小帖裏’라고 했고, 경임 정경세(鄭經世, 1563-1633)와 문답한 글에서는 시신의 제일 속에 있는 물건으로 배와 허리를 싸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확실하지는 않다고 했다.<sup>23)</sup>

18세기 중반이후의 『사례편람』에서는 과두는 배와 허리를 싸는 데 사용하는 것으로 주(紬)나 면포로 만들며 전폭(全幅) 나비에 길이는 몸을 두를 정도인, 사각형이며 네 귀퉁이에 끈이 달려있는데 여상(女喪)에서는 속칭 요대(腰帶)라 하며 남자의 과두와 모양은 같지만 아래쪽 양각(兩角)에 끈이 없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했다.<sup>24)</sup> 『사례편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여상(女喪)에 사용된 과두는 의원군(義原君) 이혁(李赫 1661-1722)의 부인인 안동권씨(1664-1722)의 습의로 사용되어 출토된 바가 있다.<sup>25)</sup>

1924년에 간행된 『朝鮮裁縫全書』에 수의의 종류 가운데 남자의 것으로 저고리, 과두가 있다. 과두의 설명에는 “과두는 머리 싸는 보인데 공단이나 공능으로 겹보를 지어서 쓰느니라”<sup>26)</sup>고 되어 있다. 1942년에 간행된 『사례의절』에는 “과두는 보통 사용하지 않기도 하며, 여상(女喪)에서는 사례편람의 설명과 같다.”<sup>27)</sup> 즉 『朝鮮裁縫全書』에서는 과두는 한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과두(裹頭)로 시신의 머리를 싸는 것이고, 『사례의절』에서는 시신의 배를 싸는 과두(裹肚)의 의미로 사용되어 명칭은 과두(裹肚)로

표기되어도 시대에 따라 용도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 3. 의례와 발기에 보이는 ‘과두’

궁중의 발기(件記)에는 1906년 太子宮嘉禮敎是時 순종(純宗)의 衣襟에 白吐紬襦裹肚一次로 옷감은 一匹과 內拱으로 白鼎紬 二匹, 中綿子 二斤, 按紙次 草紬紙十二張, 縫作 白眞絲二錢/白紬絲二錢이 든 기록<sup>28)</sup>과 1896년 尙衣司大君主陛下正朝進上물목으로 帖裏, 裹肚, 衫兒, 把持 등으로 기록이 있다. 이 때 과두는 白吐紬襦裹肚一次로 同紬一匹 內拱 白鼎紬一匹이며, 같은 기록으로 尙衣司太子宮正朝 進獻물목에는 과두가 제외되어 있다.<sup>29)</sup> 1897년 尙衣司大君主陛下正朝進上에는 白吐紬襦裹肚一次로 부속 및 기타에 同紬一疋 內拱白鼎紬一疋의 기록<sup>30)</sup>이 보인다.

의례에는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1638), 仁祖莊烈后嘉禮都監儀軌(1638), 仁祖殯殿都監儀軌(1649)를 비롯하여 純宗純宗妃嘉禮都監儀軌(1905)까지 수회에 걸쳐 과두가 기록되어 있다. 의례의 기록에는 과두의 착용 대상이 왕이나 세자를 포함한 남자이지만 가운데 仁顯王后殯殿都監儀軌(1701), 仁元王后殯殿都監儀軌(1757), 貞聖王后殯殿都監儀軌(1757), 獻敬惠嬪殯宮魂宮都監儀軌(1815), 孝懿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1821), 顯穆綏嬪殯宮魂宮都監儀軌(1882), 孝顯王后殯宮魂宮都監儀軌(1843), 純元王后殯殿都監儀軌(1860), 哲仁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1878), 孝定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1903), 純明妃殯殿都監儀軌(1904)는 왕비나 세자빈과 관련된 과두의 기록으로서 모두 빈전혼전도감의

케이머, 明成皇后嘉禮都監儀軌(1895)에는 과두의 착용자가 황후로 기록되어 있다.<sup>31)</sup>

이상에서 살펴보면 『국조오례의』가 편찬될 당시인 15세기에는, 과두는 속옷인 한삼(汗衫)이나 삼아(衫兒) 위에 입는 남자 상의의 일종이었고, 『조선왕조실록』에 과두가 언급되는 세종-선조대까지는 과두가 남자의 상의(上衣)로 이해되고 착용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연산군일기』의 이세좌(李世佐, 1445-1504)가 자결할 때의 차림에서 한삼과 과두, 철릭을 입은 순서와, 『중종실록』의 곤양수(昆陽守)<sup>32)</sup>가 과두만 입고 망건은 벗은 차림으로 사촌집안에 앉아 있었던 것이 곤양수의 사촌인 유씨의 남편으로 하여금 송사를 하게 한 원인을 작용하였던 것을 비추어볼 때 그 당시인 중종 16년(1521)에는 과두란 겉옷의 개념이 아니라, 속옷에 가까운 옷임을 알 수 있다. 『선조실록』권38에 “그런데 철릭 이상은 정의(正衣)이고 과두(裹肚) 이하는 간단하고 짧은 옷입니다.”<sup>33)</sup>라고 하여 선조26년(1593) 당시 과두는 짧은 옷으로 외출을 할 수 있는 겉옷이 아닌, 속옷의 개념 즉 저고리와 같은 상의로 해석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조선왕조실록』에 언급한 과두와, 액주름(腋注音)과의 연관성을 제시하고 싶다. 액주름은 포보다 짧은 남자의 상의로 겨드랑이에 작은 주름이 있어 명명된 복식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 세조, 성종대에 腋皺衣, 單褶兒, 褶兒, 襦傍褶兒, 袂傍褶兒, 腋注音으로 5회 기록되어 있고 仁祖莊烈后(1638)-高宗明成后(1866) 『가례도감의궤』에는 왕과 왕세자의 腋注音으로 13회 기록되어 있다. 출토복식에서 액주름은 이계륜(1431-1489)묘에서부터 강대호(1541-1624)묘까지 18건 36점이 보고된다.<sup>34)</sup> 조선시대 전기에 광의(廣義)의 과두범주에 액주름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의문으로 제기한다. 『가례집람』에서 김장생은 과두를 해석할 때 송인(宋寅, 1516-1584)의 말을 인용하여 ‘과두는 소첨리’<sup>35)</sup>이라고 하였다.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액주름의 형태는 겨드랑이 아래에 주름이 잡혀있는 길이가 짧은 철릭과 비슷하면서, 과두와 가장 유사한 옷이다.

즉 겨드랑이 아래에 주름만 없으면 과두의 형태가 된다. 출토복식에서는 17세기 전기의 묘에서 18건 36점으로 다량 수습될 정도이면, 문헌에도 자주 보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액주름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문헌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과두의 부분 디자인이 다른 형태가 오늘날 우리가 ‘액주름’이라고 부르고 있는 옷이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 더 연구할 과제로 남긴다.

임진란이 지난 후 『가례집람』이 편찬될 때 당시인 1630년대에는 ‘과두’의 명칭에 따른 형태와 용도는 혼동의 상태였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가례집람』내용에서는 송인(宋寅, 1516-1584)이 생존했을 당시에는 ‘과두’는 철릭아래에 입는 옷으로 존재했지만, 약 50년 이후에는 ‘과두’의 명칭은 있지만 용도와 형태는 완전히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후 ‘과두’는 『사례편람』(1844간행), 『사례의절』(1942)까지 나타나 있으나 상례(喪禮)시에 습구(襲具)로서 옷을 입히는 순서와 형태의 설명으로 보면 배를 싸는 가리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민간에서는 ‘과두’가 임진란 이후 17세기 초부터 상의(上衣)에서 상례(喪禮) 시에 시신을 싸는 배싸개로 형태가 변화하였는데, 『의궤』, 『국혼정례』, 『탁지정례』, 『상방정례』, 『궁중발기』에 기록되어 있는 ‘과두’는 국말까지 등장하여 옷감의 필요량을 비추어 보아 상의의 일종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민간과 궁중의 용어가 달랐는지 아니면 관습적으로 발기를 답습하여 옮겨 적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 Ⅲ. 조선시대 남자 출토복식(15-17세기 초)에 나타난 과두의 형태와 구성

조선전기 남자 출토복식의 수습은 李季胤(1431-1489)<sup>36)</sup>, 宋效商(1430-1490추정)<sup>37)</sup>, 朴堅原(1471-1501)<sup>38)</sup>, 邊脩(1447-1524)<sup>39)</sup>, 金欽祖(1461-1528)<sup>40)</sup>, 高雲(1479-1530)<sup>41)</sup>, 鄭溫(1481-1538)<sup>42)</sup>, 洪係江(16세기 추정)<sup>43)</sup>, 丁應斗(1508-1572)<sup>44)</sup><sup>45)</sup>, 李彭壽(1520-?)<sup>46)</sup>, 李彥雄(1580년대)<sup>47)</sup>, 申汝灌(1530-1580)<sup>48)</sup>, 申彥湜(1519-1582)<sup>49)</sup>, 李彥忠(1529-1582)<sup>50)</sup>, 李頤明(1513-1583)<sup>51)</sup>,

金瞻(1541-1584)<sup>52</sup>), 碧珍李氏(?-1585)<sup>53</sup>), 李應台(1556-1586)<sup>54</sup>), 沈秀崙(1534-1589)<sup>55</sup>), 金德齡(1567-1596)<sup>56</sup>), 金涵(1568-1598)<sup>57</sup>), 金緯(임란전후 추정)<sup>58</sup>), 鄭休復(1529-1604)<sup>59</sup>), 晋州柳氏<sup>60</sup>), 李彦雄(?-16세기 후반 추정)<sup>61</sup>), 趙傲(1541-1609)<sup>62</sup>), 襄天祚(1532-?)묘<sup>63</sup>), 宋喜從(? : 송효상의 손자 16세기 중후반-17세기 초반)<sup>64</sup>), 高汝雨(1544-1613)<sup>65</sup>), 傅 박장군(17세기 추정)<sup>66</sup>), 姜大虎(1541-1624)<sup>67</sup>), 尹善言(1580-1628)<sup>68</sup>), 李應癸(1547-1626)<sup>69</sup>), 金獲(1572-1633)<sup>70</sup>), 申景裕(1581-1633)<sup>71</sup>), 文益新(1556-1645)<sup>72</sup>), 鄭良佑(1574-1647)<sup>73</sup>), 金汝溫(1596-1665)<sup>74</sup>) 등의 묘에서 복식이 수습되었다.

이 장에서는 과두가 출토된 묘의 유물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과두의 형태(표 4)를 살펴보려고 한다. 과두란 앞에서 밝힌 대로 이은주의 “조선시대 남자 출토복식 가운데 상의로서 적삼이나 한삼을 제외한 포류보다 짧은 옷”<sup>75</sup>) 정의에 기초하였다. 그리하여 기존 보고서에서 주의(周衣), 직령, 솜포, 두루마기, 오자(襖子), 저고리등으로 보고한 상의(上衣) 가운데 한삼(汗衫) 보다는 길고 같은 무덤에서 수습된 포류(袍類) 보다는 길이가 20-30cm 정도 짧아 한삼이나 포류(중치막, 두루마기, 창의류)와 구별되는 복식을 과두로 분류하였다.

이는 남자의 저고리(赤古里) 표현은 18세기 후반의 『순암집 順菴集』에 小短襦(속칭 자근저고리)로 나타나며<sup>76</sup>), 직령(直領)은 곧은 깃의 형태에서 유래된 명칭이지만 독립된 복식의 명칭으로서도 있기 때문에 조선전기 특히 17세기 전기의 남자저고리에 해당하는 복식의 명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다룬 시기는 출토복식유물에서 과두가 수습되는 17세기 중반까지다. 본 장에서 분석한 과두는 송효상, 김흠조, 고운, 이응태, 김덕령, 전박장군, 심수륜, 정휴복, 조정, 배천조, 이응해, 김확, 송희종 묘에서 출토된 12건의 과두 19점이다.

### 1. 宋效商(1430-1490추정) 묘 출토 과두

송효상의 묘에서는 1점 수습되었다. 보고서에는 직령(No. 4)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소렴의로 사용되었고 솜옷으로 깃의 형태는 칼깃이고 안깃은 목판깃으로 완전 들어앉은 형이다. 소매의 형태는 진동보다

수구가 5cm 정도 좁은 통수형이나 배래가 조금 굴린 상태이다. 4.5cm 나비의 겨드랑이 삼각무가 있다. 트임은 없으며, 동정과 옷고름은 모두 달려 있지 않다. 길이 97cm, 품 73cm, 화장 97.5cm이다.<sup>77)</sup>

과두는 소렴의로 사용되었지만, 수의는 적삼, 액주름, 누비철릭2점, 솜담호, 홀단령 순서로, 하의류는 홀바지 3점, 겹바지, 누비바지 순서로 착용하고 있었다. 바지 위에 행전을 먼저하고 버선, 닥종이로 만든 습신을 신고 얼굴은 망건, 소모자, 면건, 복건, 손은 악수를 했다.<sup>78)</sup>

### 2. 高雲(1479-1530) 묘 출토 과두

고운의 묘에서는 1점 수습되었다. 보고서에는 직령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소색무명에 솜을 둔 옷으로 앞이 뒤보다 1.5cm 긴 전장후단형이다. 깃의 형태는 이중목판깃이고 안깃은 목판깃으로 완전 들어앉은 형이다. 소매의 형태는 진동에서 직선으로 가다가 수구 쪽에서 둥글어지는 직선형이다. 트임과 동정과 옷고름 모두 없다. 특징은 겨드랑이 아래 옆선이 13cm로 비교적 길며 겨드랑이 삼각무는 없다. 길이는 앞뒤 길이 차이가 있는데 앞길이는 108cm, 뒷길이는 106.5cm, 품 62cm, 화장 115.5cm이다.<sup>79)</sup>

### 3. 李應台(1556-1586) 묘 출토 과두

이응태 묘에서는 1점이 수습되었는데, “오자(襖子)라는 이름으로 전시했던 솜용 면포 겹저고리이다.”<sup>80)</sup> 깃의 형태는 칼깃이고 안깃은 목판깃으로 4/5완전 들어앉은 형이다. 소매의 형태는 진동에서 직선으로 가다가 수구 쪽에서 둥글어지는 직선형이다. 트임은 17.5cm, 동정은 남아 있으나 옷고름은 떼어지고 없고 조금만 남아있다. 겨드랑이 삼각무가 있다. 길이 99cm, 품 70cm, 화장 116cm이다.<sup>81)</sup>

### 4. 沈秀崙(1534-1589) 묘 출토 과두

심수륜 묘에서 3점이 수습되었다. 보고서에는 모두 주의(周衣)로 명명되었다. 1점(No.2)은 소색 주로

<표 4> 조선시대 전기 출토복식에서 살펴본 과두(裹肚)의 형태

			
송호상(1430-1490 추정) 대전 목달동 출토 조선초·중기 여산송씨 출토복식, 2006, p. 226.	고운(1479-1530)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㉔, 2006, p. 359.	이응태(1556-1586) 안동 정상동 일선 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 보고서, 2000, p. 310.	심수륜(1534-1589) 심수륜묘 출토복식, 2004, p. 178.
			
심수륜(1534-1589) 심수륜묘 출토복식, 2004, p. 194.	심수륜(1534-1589) 심수륜묘 출토복식, 2004, p. 206.	김덕령(1567-1596)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㉔, 2006, p. 284.	김덕령(1567-1596)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㉔, 2006, p. 284.
			
진박장군(17세기 추정)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㉔, 2006, p. 323.	정휴복(1526-1604) 韓國服飾, 7, 1989, p. 140.	정휴복(1526-1604) 韓國服飾, 7, 1989, p. 144.	조경(1541-1609) 趙敬墓出土遺衣, 2003, p. 29.
			
조경(1541-1609) 趙敬墓出土遺衣, 2003, p. 14.	조경(1541-1609) 趙敬墓出土遺衣, 2003, p. 15.	조경(1541-1609) 趙敬墓出土遺衣, 2003, p. 16.	배천조(1532-?) 충북 영동 심산 배씨 문중 기증 16·17세기 출토복식, 2007, p. 22.
			
이응해(1547-1626)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㉔, 2006, p. 385.	송희중(16세기 후반 추정) 대전 목달동 출토 조선초·중기 여산송씨 출토복식, 2006, p. 279.	김확(1572-1633) 김확 합장묘 출토복식, 2007, p. 330.	

만든 겹옷으로 습(襲)에 사용되었고, 깃의 형태는 칼 깃이고 안깃은 완전 내어 달린 형이다. 소매는 진동에서 수구로 갈수록 좁아지는 통수형이다. 겨드랑이

아래에 삼각형 무가 달려있으며, 동정과 긴고름이 달려있다. 길이 98cm, 폭 65cm, 화장 95.5cm이다.

1점(No.10)은 아청색 무문단의 솜옷으로 대령 후

보공용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깃의 형태는 칼깃이고 안깃은 완전 내어 달린 형이다. 소매는 진동에서 직선으로 가다가 수구에서 굴린 두리소매형이다. 트임은 16cm이며 트임에 매듭단추가 달려있다. 동정이 달려있으며 옷고름은 안길 쪽 고름만 남아있다. 겨드랑이에는 4.5cm의 삼각무가 달려있다. 이 옷에 사용된 옷감과 동일한 감으로 만든 허리띠가 수습되어 허리띠를 매어 사용한 옷으로 추측된다. 길이 97cm, 품 70cm, 화장 90cm이다.

1점(No. 28)은 소재 주로 만든 솜누비 옷으로 대령에 사용되었다. 깃의 형태는 칼깃이고 안깃은 목판깃으로 1/2내어 달린 형이다. 소매는 두리소매형이다. 트임은 없다. 동정이 달려있고 옷고름은 겹고름과 속고름 모두 달려있으며 겹고름은 88cm로 길다. 겨드랑이에 4×5cm의 삼각무가 달려있다. 길이 102cm, 품 62.5cm, 화장 90cm이다.<sup>82)</sup>

#### 5. 金德齡(1566-1596) 묘 출토 과두

김덕령의 묘에서는 2점이 보고되었다. 2점은 보고서에는 두루마기 또는 직령이라고 보고되었다. 1점은 무명에 솜을 두고 곱게 누비 옷이다. 깃의 형태는 칼깃이며 안깃은 완전내어 달린 형이다. 섶은 이중섶이다. 소매는 진동에서 수구까지 급격히 좁아지는 사선형이며 배래는 약간 둥글다. 고름과 동정은 없다. 트임은 없으며, 겨드랑이에 삼각무가 있다. 길이 107cm, 품 70cm, 화장 85cm이다.

1점은 겹이며 깃의 형태는 칼깃이고 안깃은 1/2내어 달린 형이다. 섶은 이중섶이다. 소매는 진동에서 수구까지 5cm 정도 차이가 나며 배래도 조금 굴린형이다. 고름과 동정은 없다. 트임은 없으며 겨드랑이에 삼각무가 있다. 길이 108cm, 품 74cm, 화장 85cm이다.<sup>83)</sup>

#### 6. 全(傳) 박장군(朴將軍) 묘 출토 과두

1980년 4월 대청댐 공사로 인하여 이장하게 되었으며, 충청북도 청원군 문의면 후곡리 노계산에서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박장군 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임진왜란 전후의 의복으로

생각된다. 보고서에는 '소재명주 누비 동방형 직령'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1점이 있다.

깃의 형태는 칼깃이고, 소매는 진동에서 수구로 갈수록 약간 좁아지는 사선형이다. 고름은 없으나 동정은 달려있다. 트임은 알 수 없다. 겨드랑이 삼각무는 무에 포함된 형태이다. 길이 90cm, 품 52cm, 화장 96cm이다.<sup>84)</sup>

#### 7. 鄭休復(1529-1604) 묘 출토 과두

정휴복 묘에서는 2점 수습되었다. 보고서에는 직령포(直領袍)라고 되어 있다. 1점은 깃의 형태는 이중칼깃이고 안깃은 1/3내어 달린 형'이다. 소매는 진동에서 수구까지 거의 직선인 통수형이나 배래는 조금 둥근형이다. 고름과 동정은 없다. 트임은 옆길이의 1/2정도이다. 겨드랑이에 삼각무가 있다. 길이 118cm, 품 64cm, 화장 97cm이다.

1점은 깃의 형태는 칼깃이고 안깃은 반파되어 알 수 없다. 소매는 진동에서 수구까지 직선인 통수형이다. 고름과 동정은 없다. 트임은 없으며 겨드랑이 삼각무도 없다. 길이 96cm, 품 60cm, 화장 89cm이다.<sup>85)</sup>

#### 8. 趙徹(1541-1609) 묘 출토 과두

조경 묘에서는 4점 수습되었다. 보고서에는 1점은 솜포, 3점은 저고리로 명명되어 있다.

솜포라고 명명되어 있는 과두는 솜누비로 누비간격은 17cm이다. 깃의 형태는 칼깃이고 안깃은 1/2내어 달린 형'이다. 소매는 진동에서 수구로 갈수록 조금 좁아지는 통수형이다. 고름은 안길에만 달려있고 동정도 달려있다. 트임은 26cm이며, 5.5cm의 겨드랑이에 삼각무가 있다. 길이 106cm, 품 85cm, 화장 106cm이다.<sup>86)</sup>

저고리 1로 분류된 과두는 솜누비 옷으로 길의 누비간격은 8cm, 소매의 누비간격은 17cm이다. 깃의 형태는 칼깃이고 안깃은 3/4내어 달린 형이다. 소매는 진동에서 수구까지 거의 직선인 통수형이다. 고름과 동정은 없다. 트임은 없으며, 7cm의 겨드랑이 삼각무



〈표 5〉 조선시대 출토복식에 나타난 과두의 치수

단위 cm

묘주	구분	길이	몸	화장	고대	진동	수구	깃		겨드랑이 삼각부	트임 길이
								나비	길이		
송효상 (1430-1490추정)		97	73	97.5	20	37	27	11	?	4.5	-
고운(1479-1530)		108(앞)/ 106.5(뒤)	62	115.5	20	33.5	26	12	116	-	-
이응태(1556-1586)		99	70	116	20	36	26.5	13.5	116	4	17.5
심수륜(1543-1589)		98	65	95.5	20	34	29	11.5	111.5	3	-
		97	70	90	22	37	22	11.5	119	4.5	16
		102	62.5	90	21	35.5	26	10.5	111	4	-
김덕령(1567-1596)		107	70	85	19	33	18	10	?	4	-
		108	74	85	21	22.5	29.5	10	109	5	-
전박장군 17세기초 추정		90	52	96	20	24	20	10	?	견마기형	?
정휴복(1529-1604)		118	64	97	20	?	22	?	?	?	?
		96	60	89	반과	?	23.5	?	?	?	-
조경 (1541-1609)		106	85	106	20	32	29	11.5	108	5.5	26
		87.5	87	104.5	20	32.5	29.5	13.5	105	7	-
		78	81	70	20	34	33.5	12	107	4.5	16
		90	88	86	20	36	33.5	12.5	110	7	23
배천조(1532-?)		104	53	87	21	29	23	?	?	4	-
이응해(1547-1626)		113	60	94	20	32	24	11.5	121	3.5	33
김확(1572-1633)		80	62.5	98.5	22	30.5	21.5	9	91	-	13
송희종 (16세기-17세기 초)		94	60	97.5	19	34	20.5	11	?	4	-

※ 치수에 표기되어 있는 ?는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의 표기이며, -는 없음의 표기이다.

가 있다. 길이 87.5cm, 몸 87cm, 화장 104.5cm이다.<sup>87)</sup>

저고리 2로 분류된 과두는 겹옷으로 깃의 형태는 칼깃이고 안깃은 완전 내어 달린형이다. 소매는 진동과 수구의 치수가 동일한 통수이다. 고름은 안길에 일부만 남아 있고 동정은 없다. 트임은 21cm이고, 4.5cm의 겨드랑이 삼각부가 있다. 길이 78cm, 몸 81cm, 화장 70cm이다.

저고리 3으로 분류된 과두는 솜누비 옷으로 길의 누비간격은 23cm, 소매의 누비간격은 17.5cm이다. 깃의 형태는 칼깃이고 안깃은 거의 들어앉은 형이다. 소매는 진동과 수구의 치수가 거의 차이가 없는 통수형이다. 고름과 동정은 없다. 트임은 23cm이고, 7cm의 겨드랑이 삼각부가 달려있다. 길이 90cm, 몸 88cm, 화장 86cm이다.<sup>88)</sup>

### 9. 배천조(裵天祚, 1532-?) 묘 출토 과두

보고서에 과두로 분류되어 있는 1점이 있다. 과두는 솜누비로 누비간격은 7cm이다. 깃은 칼깃이고 안깃은 완전 들어 앉은 형이다. 소매는 진동에서 수구로 갈수록 조금 좁아지는 직선형이다. 고름과 동정은 없다. 트임은 없으며 4cm의 겨드랑이 삼각부가 달려 있다. 길이 104cm, 몸 53cm, 화장 87cm이다.<sup>89)</sup>

### 10. 李應獬(1547-1626) 묘 출토 과두

보고서에 창의(擎衣)라고 명명된 과두 1점이 있다. 과두는 솜누비로 누비간격은 7cm이다. 깃은 칼깃이고 안깃은 완전 내어 달린 형이다. 소매는 진동에서 수구로 갈수록 좁아지나 배래는 약간 굴러 둥글다. 고름과 동정은 없다. 트임은 33cm이고, 3.5cm의 겨

드랑이 삼각무가 달려있다. 길이 113cm, 품 60cm, 화장 94cm이다.<sup>90)</sup>

### 11. 金篋(1572-1633) 묘 출토 과두

보고서에 저고리로 분류되어 있는 1점이 있다. 과두는 솜누비로 솔기에 누비선이 있어 솜을 고정시킨 형태이다. 깃은 칼깃이고 안깃은  $\frac{2}{3}$  내어 달린 형이다. 소매는 진동에서 수구로 갈수록 조금 좁아지는 사선형이다. 고름과 동정은 있으며, 트임은 13cm가 있고 겨드랑이 삼각무가 달려있다. 길이 80cm, 품 62.5cm, 화장 98.5cm이다.<sup>91)</sup>

### 12. 송희종(宋喜從 16세기 후반 추정) 묘 출토 과두

보고서에 의하면 저고리(No.22)로 분류된 과두는 산의(散衣)로 사용되었다. 과두는 솜누비로 깃은 칼깃이고 안깃은 완전히 내어 달린 형이다. 소매는 진동에서 수구로 갈수록 좁아지나 배래는 약간 굴러 둥글다. 고름은 길고름이 매우 긴고름이 달려있고 동정도 있다. 트임은 없으며, 4cm의 겨드랑이 삼각무가 달려있다. 길이 94cm, 품 60cm, 화장 97.5cm이다.<sup>92)</sup>

이상에서 살펴본 조선시대 출토 복식에 나타난 과두의 치수는 <표 5>로 정리하였다. <표 5>에 의하면 과두는 옷길이 78-118cm, 품은 53-88cm, 화장은 78-116cm, 고대는 19-21cm, 진동은 29-37cm, 수구는 20.5-36.5cm이다. 이는 같은 묘에서 출토된 포류의 길이와 비교하면 약 20-30cm 정도 짧은 길이이다. 이 가운데 김확(1572-1633) 묘의 과두는 남자 저고리로 변해가는 짧은 길이라고 할 수 있겠다.

## IV. 조선시대 과두의 형태와 특징 및 변화

III장에서 살펴 본 조선시대 전기 남자 묘에서 출토된 과두의 형태에 따라, 깃, 소매, 옆트임의 유무, 고름 형태, 옷의 구성(겉, 솜, 솜누비)의 특징을 <표

6>으로 정리하였다.

### 1. 깃형태

조선시대 과두의 깃은 ①이중목판깃, ②칼깃이 있다. 이중목판깃은 고운(1479-1530)묘 출토 과두에서만 찾아 볼 수 있다. 고운 묘의 답호, 철릭, 직령의 깃 모양도 동일한 형태이다. 이 묘에서 출토된 과두를 제외한 나머지 묘 출토 과두의 깃모양은 칼깃으로 깃나비도 10.5-13.5cm 정도로 비교적 동일한 형태와 치수이다.

안깃은 목판깃으로 ①완전 들어 얹은 깃, ②  $\frac{1}{2}$  내어 달린 깃, ③  $\frac{1}{3}$  들어 얹은 깃, ④완전 내어 얹은 깃으로 다양하다. ①유형은 송효상, 고운, 조경, 배천조 묘에서 출토된 과두가 이에 속한다. ②유형은 이응태, 심수륜, 정휴복, 조경 묘 출토 과두가 있다. ③유형은 조경, 김확 묘 출토과두 2점이 있다. ④유형은 심수륜, 조경, 이응해, 송희종 묘에서 출토된 과두이다. 안깃은 4가지 유형이 있지만 일정한 흐름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 2. 소매형태

조선시대 과두의 소매 형태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진동과 수구의 치수가 차이가 있는 사선형 ②진동과 수구 치수가 차이는 있으나 배래를 조금 굴린 형 ③진동에서 배래는 직선이나 수구에서 굴린 두리소매형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①유형에 속하는 것은 송효상, 심수륜, 김덕령, 전박장군, 정휴복, 조경, 배천조, 김확 묘에서 출토된 과두로 12점으로 55%가 이에 속한다. ②유형은 고운, 이응태, 정휴복, 이응해 과두가 이에 속하며 4점으로 20%가 이에 속한다. ③유형은 심수륜, 김덕령, 송희종 묘 출토 과두로 4점으로 20%이다.

소매의 형태 변화도 일정한 흐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령, 직령, 철릭이나 답호 등의 포류의 소매 형태가 점차 넓어지는 ①→②→③유형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에 반해 과두는 소매가 좁은 형이 대부분이다.

〈표 6〉 조선시대 과두의 형태와 특징

구분 묘주	구성	깃	안깃	걸섶	소매 유형	겨드랑이 삼각무 유무	트임 유무	고름 유무	동정 유무	옷감	용도
송효상	숨	칼깃	완전 들어 앉은 형	이중	사선형	○	×	×	×	명주	소름의
고운	숨	이중 목판깃	완전 들어 앉은 형	이중	사선형	×	×	×	×	무명	미상
이응태	겹	칼깃	$\frac{1}{2}$ 내어 달린형	이중	배래 둥근형	○	○	일부	○	면포	습용
심수륜	겹	칼깃	완전 내어 달린 형	이중	사선형	○	×	긴 고름	○	주	습용
	숨	칼깃	완전 내어 달린 형	단*	두리소매	○	○	○	○	아청단	보공용
	숨누비	칼깃	$\frac{1}{2}$ 내어 달린 형	이중	두리소매	○	×	긴 고름	○	주	대렴
김덕령	숨	칼깃	완전 내어 달린 형	이중	사선형	○	×	×	×	무명	미상
	겹	칼깃	$\frac{1}{2}$ 내어 달린 형	이중	두리소매	○	×	×	×	무명	미상
전박장군	숨누비	칼깃	?	?	사선	×	?	×	×	명주	미상
정휴복	겹	칼깃	$\frac{1}{2}$ 내어 달린 형	이중	배래 둥근형	○	?	×	○	명주	미상
	홀	칼깃	미상	이중	사선	×	×	×	×	삼베	미상
조경	숨누비	칼깃	$\frac{1}{2}$ 내어 달린 형	이중	사선	○	○	×	○	주	미상
	겹	칼깃	$\frac{2}{3}$ 내어 달린 형	단	사선	○	×	일부	×	주	미상
	겹	칼깃	완전 내어 달린 형	단	직선	○	○	×	×	주	미상
	누비	칼깃	$\frac{7}{8}$ 들어 앉은 형	이중	사선	○	○	×	×	주	미상
배천조	숨누비	칼깃	완전 들어 앉은 형	이중	사선	○	?	×	×	무명	미상
이응해	숨누비	칼깃	완전 들어 앉은 형	이중	배래 둥근형	○	○	×	×	갈색주	미상
김화	숨누비	칼깃	$\frac{2}{3}$ 내어 달린 형	단	사선	○	○	일부	○	주	미상
송희중	숨누비	칼깃	완전 내어 달린 형	이중	두리소매	○	×	긴 고름	○	무명	산의

\*단섶이나 옷감이 광폭으로 섰나비는 이중섶 정도이다. \*고름의 ×는 떼어져 없음의 표시이다.

### 3. 걸섶의 형태

조선시대 과두의 걸섶은 조경, 김화 묘 출토 과두 3점을 제외하고 모두 이중섶이다. 이는 과두는 앞섶을 여유있게 여며 입는 옷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과두가 17세기 전기까지 출토되는 옷임을 고려할 때 이 시기까지는 옷의 크기도 크고 풍성한 실루엣이 연출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조경과 김화 묘의 단섶 과두는 옷길이기도 다른 과두에 비해 짧아 18세기의 남자 저고리로 변해가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 4. 겨드랑이 삼각무

과두에 부착되어 있는 겨드랑이 삼각무는 진동 아

래에 사각형의 옷감을 반을 접어 삼각형으로 만들어 달거나, 삼각형의 무 2개를 이어 붙이기도 한다.

고운, 전박장군, 정휴복 묘에서 출토된 과두에는 겨드랑이하래 삼각무가 달려있지 않다. 전박장군 묘 출토 과두는 17세기 중후반 여자 저고리의 견마기처럼 겨드랑이 아래 삼각무가 길옆에 포함된 무 모양이다.

### 5. 옆트임

출토된 과두 가운데 옆트임이 없는 것은 송효상, 고운, 심수륜 1점, 전 박장군, 정휴복 1점, 조경 1점, 배천조 묘 출토 과두이다. 이는 7점으로 35%에 해당된다. 옆트임의 길이는 10-33cm로 시대가 내려 갈수

록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나 김확의 경우에는 과두의 옷길이가 짧아서 동시대의 과두의 트임보다는 짧다.

## 6. 웃고름과 동정

웃고름은 대부분 떼어진 상태로 수습되었다. 완전한 고름이 있는 것은 3점으로 심수륜 2점, 송희종 묘에서 나온 과두이다. 이 가운데 심수륜 1점을 제외한 나머지 2점은 걸길에 달린 고름이 매우 긴고름으로 허리를 한 번 둘러도 될 정도의 길이이다. 심수륜 묘에서 수습된 아청색 무문단 과두는 같은 옷감의 허리띠가 수습된 것으로 보아 허리띠도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동정은 9점에 남아 있다. 이응태, 심수륜 3점, 정휴복, 조경 1점, 김확 1점, 송희종 묘 출토 과두에서 동정을 찾아 볼 수 있다.

## 7. 과두의 구성

조사대상 19점 가운데 겹옷은 이응태, 심수륜 1점, 김덕령, 조경 2점으로 모두 5점 26%이다. 솜옷은 송효상, 고운, 심수륜 1점, 김덕령 묘 출토 과두로 4점이며 21%를 차지한다. 솜누비는 8점으로 심수륜 1점, 전박장군, 조경 2점, 배천조, 이응해, 김확, 송희종 묘 출토 과두로 42%이다. 홑옷은 정휴복 묘에서 수습된 과두 1점으로 반파되었으며 삼베로 만든 것이다.

이상에서 조선시대 출토복식 가운데 과두를 살펴 보았다. 이 가운데 송효상(1430-1490 추정) 묘에서 출토된 복식은 문중에서 추정하는 생물문과 일반적으로 출토복식에서 보이는 형태의 경향과는 일치하지 않아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

## V. 결론

최근 문화재청에서 중요민속자료를 정리하면서 과거에 동방형포, 직령포, 솜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보고되었던 조선시대 남자묘에서 출토된 남자 저고리에 해당되는 상의를류를 '과두(褰肚)'라고 명명한 이래, 배천조 묘 출토 과두가 처음으로 '과두'로 보고되었다.

이 연구는 조선시대 문헌과 출토복식에 나타나는 과두를 살펴보았다. 문헌은 『조선왕조실록』과 예서(禮書)를 중심으로 과두의 형태와 용도, 구성, 소재 등을 조사하였고 남자 묘에서 출토된 한삼을 제외한 포류보다 짧은 상의를류를 '과두'라고 전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이유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예서에서 한삼 위에 입는 저고리에 해당하는 옷이 과두이기 때문이며, 출토복식 보고서에 조선전기의 남자묘에서 습의(襲衣)로 사용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의 보고서에 주의(周衣)나 저고리로 분류한 복식을 과두(褰肚)로 명명한 이유는 조선시대 문헌에 주의(周衣)가 등장하는 것은 1776년 『영조실록』의 재궁의대의 '夾袖周衣'의 기록에서 보이고, 남자의 저고리(赤古里) 표현도 18세기 후반의 『순암집 順菴集』에 小短襦(속칭 자근저고리)로 나타나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토복식에서도 17세기 전반까지는 한삼 보다는 길고, 포(袍) 보다는 매우 짧은 형태에서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문헌에 나타난 과두(褰肚)의 용도와 형태는 『국조오례의』가 편찬된 15세기에는, 속옷인 한삼(汗衫)이나 삼아(衫兒) 위에 입는 남자 상의의 일종이었고, 『조선왕조실록』에 과두가 언급되는 세종-선조대인 16세기 말까지는 과두가 남자의 상의(上衣)로 착용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임진란이 지난 후 『상례비요』, 『가례집람』이 간행된 1630년대에는 '과두'의 명칭은 그대로이나 상례(喪禮)시에 배를 감싸는 사각형의 보자기 모양에 네 귀퉁이에 끈이 달린 습구(襲具)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임진란으로 인하여 과거와는 단절된 의생활을 보여주는 일면이라 할 수 있다. 그 이후 '과두'는 18세기 중기에 편찬되고 1844년에 간행된 『사례편람』, 1942년에 간행된 『사례의절』까지 나타나 있으나 상례(喪禮)시에 습구(襲具)이며, 배를 싸는 가리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사례편람』에 등장하는 소대(小帶) 속칭 요대(腰帶)는 허리띠이고, 여상(女裳)에 등장하는 과두(속칭 腰帶)는 배를 싸는 가리개로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남녀 바지의 형태의 차이로 짐작할 수 있다. 즉 여자의

바지는 허리띠가 붙어 있지만 남자의 바지는 분리되어 있는 점이다.

궁중의 기록인 『의궤』, 『국혼정례』, 『탁지정례』, 『상방정례』, 『궁중발기』에 기록되어 있는 '과두'는 국말까지 등장하여 옷감의 필요량을 비추어 보아 상의(上衣)의 일종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민간과 궁중의 용어가 달랐는지 아니면 관습적으로 발기를 답습하여 옮겨 적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2. 남자의 저고리에 해당되는 용어로 17세기 이전에는 과두(裹肚), 18세기 중반 이후에 포(袍)라고 표기하고 세속에서는 중치막(中赤莫) 혹은 동의(冬衣)라고 불렀고, 18세기 후반의 『순암집 順菴集』에 小短襦(속칭 자근저고리)의 기록과 19세기 이후에는 저고리가 사용되었다. 그 한 예로 김병학(1821-1879)의 신종록(愼終錄)의 습구(襲具)에 저고리(赤古里)의 기록이 있다. 1924년 『조선재봉전서』에서는 남자저고리가 표기되어 있다. 1942년 발간된 『사례의절』에는 한자로 표기된 오(襖)는 속칭 동의(冬衣)라고 불리웠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 출토복식에서 보고되는 과두는 남자의 상의로 한삼 위에 입는 편복(便服)으로 포류(袍類)보다 짧은 옷으로 겹옷, 솜옷, 누비옷으로 방한용이 많다. 깃 형태는 고운(高雲 1479-1530) 묘에서는 이중목판깃이며 나머지 묘에서 수습되는 과두의 깃은 칼깃이다. 깃모양은 과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동시대 출토복식의 남자 포류(袍類)가 이중칼깃과 칼깃이 함께 나오는 것에 비해 과두는 칼깃으로 안정화 된 것 같다. 이는 과두의 수량이 적게 수습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과두의 용도가 외출용 겹옷이 아닌, 평상용 옷이라는 것에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소매의 형태도 과두가 수습되는 묘의 남자 포류보다는 좁은 소매로, 포류 아래에 입는 용도에 알맞는 크기와 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옷길이가 또한 과두가 수습된 묘에서 포류(袍類)는 과두보다 20-30cm 길어서 확연히 구별이 되었다.

과두의 용도를 밝혀 놓은 출토복식 보고서는 드물

지만 습용(襲用)으로 사용된 경우는 이응태, 심수륜 묘에서 수습된 1점씩이 있고 소렴용으로 송효상, 대렴용으로 심수륜 묘의 1점, 보공용으로 심수륜 묘의 1점과 송희중 묘의 과두 1점이 있다.

과두는 문헌에서 궁중관련 기록을 제외하고, 일반인 남자 상의의 용도로 15세기부터 17세기 전기까지 기록되어 있어, 출토복식에서 수습되는 과두의 시기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과두는 15세기 초기부터 17세기 초기까지 남자 묘에서 수습되나 16세기 후반으로 집중되며, 17세기 전기 이후에는 점차 사라지는 복식이다. 이는 액주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액주름은 문헌에서 흔하게 보이는 복식은 아니나 출토복식에는 다수 수습된다. 송인(宋寅, 1516-1584)은 과두란 '小帖裏'라고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액주름과 과두의 연관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16세기 중후반의 과두라는 명칭에는 액주름의 형태도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과두의 옆트임 유무는, 과두가 17세기 중기 이후에 옆이 막힌 것은 길이에 따라 짧은 것은 남자 저고리로, 옆트임이 있는 것은 소창의로 변화하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柳喜卿 (1975), 한국복식사연구, 서울: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pp. 366-367.
- 2) 劉頌玉 (1991), 朝鮮王朝 宮中儀軌服飾, 서울: 수학사, pp. 125-126.
- 3) 박성실 (1992), 조선전기 출토복식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20-122.
- 4) 송미경 (1989), 履裳의(履裳衣)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7-18.
- 5) 문화재청(편) (2006),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② 복식·자수편, 대전: 문화재청, pp. 284-285.
- 6) 황유선 (1999), 조선시대 저고리類 명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16-23.
- 7) 정말숙 (2005), 조선시대 王의 履裳衣襟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93-95.
- 8) 단종실록 권4 즉위년(1452) 10월 4일, 10월 5일, 10월 13일, 12월 2일.  
단종실록 권14, 3년(1455) 4월 22일.
- 9) 세조실록 권4, 2년(1456) 7월 18일.  
세조실록 권15, 5년(1459) 3월 10일, 3월 15일.  
세조실록 권19, 6년(1460) 3월 9일.  
세조실록 권43, 13년(1467) 7월 22일, 8월 6일, 9월 14일.

- 새조실록 권44, 13년(1467) 10월 2일, 10월 22일.  
 새조실록 권46, 14년(1468) 4월 9일.
- 10) 성종실록 권1, 즉위년(1469) 12월 2일.  
 성종실록 권6, 1년(1470) 7월 24일.  
 성종실록 권7, 1년(1470) 8월 22일.  
 성종실록 권9, 2년(1471) 2월 10일.  
 성종실록 권44, 5년(1474) 윤6월 2일.  
 성종실록 권46, 5년(1474) 8월 19일.  
 성종실록 권50, 5년(1474) 12월 16일, 12월 19일.  
 성종실록 권70, 7년(1476) 8월 4일.  
 성종실록 권74, 7년(1476) 12월 23일.  
 성종실록 권110, 10년(1479) 윤10월 2일.  
 성종실록 권283, 24년(1493) 10월 16일.
  - 11) 연산군일기 권2, 1년(1495) 1월 6일.  
 연산군일기 권34, 5년(1499) 7월 20일.  
 연산군일기 권50, 9년(1503) 8월 9일.  
 연산군일기 권52, 10년(1504) 4월 9일.
  - 12) 중종실록 권41, 16년(1521) 4월 11일.  
 중종실록 권55, 20년(1525) 10월 3일, 10월 14일.  
 중종실록 권61, 23년(1528) 4월 11일.  
 중종실록 권90, 34년(1539) 4월 25일.
  - 13) 선조실록 권38, 26년(1593) 5월 2일.
  - 14) 성종실록 권50, 5년(1474) 12월 16일.
  - 15) 중종실록 권55, 20년(1525) 10월 14일.
  - 16) 중종실록 권90, 34년(1539) 4월 25일.
  - 17) 단종실록 4권 즉위년(1452), 10월 4일.
  - 18)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 갑자사화 때 윤비의 폐의를 극간하지 않았고 형방승지로서 윤비에게 사약을 전하였다하여 자신의 명을 받고 목매어 자결하였다. : 두산백과사전 <http://100.never.com/100.nhn?docid=854173>
  - 19) 연산군일기 권52, 10년(1504) 4월 9일.
  - 20) 고전국역총서 연산군일기 Ⅷ, 제52권 10년 4월 9일 p. 310. 재단법인 민족문화추진회, 1989.
  - 21) 중종실록 권41, 16년(1521) 4월 11일. 국역 중종실록 21, p. 129.
  - 22) 國朝五禮儀 卷之八, 凶禮 大夫庶人喪儀, 五禮八 七十三.
  - 23) 家禮輯覽 卷之四十, 手鑑 褻古火切包也 肚徒古腹肚也 頤庵曰 卽俗之小帖裏也 愚當問于景任曰家禮褻肚之用最內在乃屍身親近之物必是如今包裹腹之物景任答曰來示無擬..
  - 24) 四禮便覽 卷之三喪九 褻肚 用以包裹腹腰者 用紬或綿布爲之. 廣全幅長匠身 四角有繫 女褻 俗稱腰帶 制同男褻肚 但下兩角無繫.
  - 25) 경기도박물관(편) (2001). 전주이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용인: 경기도박물관, pp. 232-262.
  - 26) 金淑堂 (1924). 朝鮮裁縫全書. 京城: 活文社, pp. 178-187.
  - 27) 四禮儀節 世昌書館 京城: 昭和 17, p. 17. 俗或不用 女褻 俗稱 腰帶니 制同外褻褻肚라 但下兩角에 無繫.
  - 28) 이명은 (2003). 『궁중복식』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연구-장서각소장품을 중심으로- 재인용, pp. 189-190.
  - 29) 위의 글, p. 215.
  - 30) 위의 글, p. 216.
  - 31) 황유선, 앞의 글, pp. 110-114에서 재인용.
  - 32) 곤양수(昆陽守)의 이름은 하(河)로 무봉정 총(茂豊正總)의 아들이다. 이총(李總 ?-1504)은 태종의 증손으로 갑자사화 때 아버지와 함께 7부자가 죽음을 당했다.
  - 33) 선조실록 권38, 26년(1593) 5월 2일.
  - 34) 이황조 (2006). 조선시대 腋注음의 조형적 특징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2-40.
  - 35) 家禮輯覽 卷之四十, 手鑑 褻古火切包也 肚徒古腹肚也 頤庵曰 卽俗之小帖裏也 愚當問于景任曰家禮褻肚之用最內在乃屍身親近之物必是如今包裹腹之物景任答曰來示無擬..
  - 36) 박성실 (1993). 廣州郡 突馬面 朽栗里 出土 全州李氏 義安大君 襄昭公派 遺物小考. 韓國服飾, 11, pp. 57-89.
  - 37) 대전광역시, 부산대학교 한국전통복식연구소(편) (2006). 대전 목달동 출토 조선초·중기 여산송씨 출토복식. 대전: 대전광역시, pp. 67-149, pp. 232-235.
  - 38) 김선아, 이용희 (2000). 順天朴氏 始祖墓出土 服飾 保存處理. 박물관보존과학, 2, pp. 9-18.
  - 39) 최은수 (2003). 변수(1447-1524) 묘 출토복식 고찰. 생활문화연구, 11, pp. 89-139.
  - 40) 영주시 (1998). 判決事 金欽祖先生 合葬墓 發掘調査報告書. 영주: 영주시, pp. 229-326.
  - 41) 광주민속박물관(편) (2000). 霞川 高雲 出土遺物. 광주: 광주민속박물관, pp. 35-118.
  - 42) 박성실 (1998). 과두 금릉리 출토 경주정씨 유물 소고. 韓國服飾, 16, pp. 31-39.
  - 43) 박성실 (1992). 앞의 책, pp. 318-71.
  - 44) 박성실, 고부자 (1991). 高陽 陵谷 茂院 出土 羅州丁氏 月軒公派 出土遺物 小考. 韓國服飾, 9, pp. 45-83, pp. 135-157.
  - 45) 박성실 (1992). 앞의 책, pp. 159-228.
  - 46) 고려대학교박물관, 경기도·한국토지개발공사(편) (1992). 全州李氏 泰安君 墓(雙墳) 發掘調査報告書, pp. 41-43.
  - 47) 박성실 (1992). 앞의 책, pp. 259-317.
  - 48) 고부자 (1999). 일영 출토 고령신씨 유물 소고. 韓國服飾, 17, pp. 41-122.
  - 49) 위의 책, pp. 41-122.
  - 50) 박성실 (2002). 서울시 중계동 출토 星州李氏 大司憲 彦忠(1524-1528)墓 복식 고찰. 韓國服飾, 20, pp. 87-154.
  - 51) 이순원, 유효선, 조우현, 서울대학교 한국복식연구소(2000). 이석명(李碩明)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서울: 서울대학교 博物館, pp. 25-124.
  - 52) 문화재청(편). 앞의 책, pp. 340-345.
  - 53) 박성실 (1992). 앞의 책, pp. 229-258.
  - 54) 안동대학교박물관(편) (2000). 안동 정상동 일선 문씨와 이용태묘 발굴조사 보고서. 안동: 안동대학교박물관, pp. 171-348.
  - 55) 경기도박물관(편) (2004). 심수묘 출토복식. 용인: 경기도박물관, pp. 110-175.
  - 56) 문화재청(편). 앞의 책, pp. 282-291.
  - 57) 위의 책, pp. 336-339.
  - 58) 위의 책, pp. 340-351.
  - 59) 박성실, 고부자 (1989). 城南出土 東萊鄭氏 出土遺物

- 에 관한 小考. 韓國服飾, 7, pp. 123-154.
- 60) 경기도박물관(편) (2006). *진주류씨 합장묘 출토복식*. 용인: 경기도박물관, pp. 114-144.
- 61) 문화재청(편). *앞의 책*, pp. 300-307.
- 62) 서울역사박물관(편) (2003). *趙徹墓出土遺衣*.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pp. 38-126.
- 63) 건국대학교박물관(편) (2007). *충북 영동 성산 배씨 문중 기증 16·17세기 출토복식*. 서울: 건국대학교박물관, pp. 11-31, pp. 73-94.
- 64) 대전광역시·부산대학교 한국전통복식연구소. *앞의 책*, pp. 67-149, pp. 232-235.
- 65) 고부자 (1997). 천안 풍세면 출토 제주고씨 유물에 대한 연구. 韓國服飾, 15, pp. 65-119.
- 66) 문화재청(편). *앞의 책*, pp. 318-329.
- 67) 고부자 (2005). 경기도 파주 출토 진주강씨(대호, 1541-1624) 유물. 韓國服飾, 23, pp. 39-180.
- 68) 고부자 (2008). 海南尹氏 橘亭公派 廣州出土 遺物 研究. 韓國服飾, 27, pp. 33-84.
- 69) 충주박물관(편) (2004). *이응해 장군묘 출토복식*. 충주: 충주박물관, pp. 8-166.
- 70) 경기도박물관(편) (2007). *김확 합장묘 출토복식*. 용인: 경기도박물관, pp. 148-224.
- 71) 박성실 (2008). 경기도 광주 출토 정사공신 신경유(1581-1633) 복식 고찰. 韓國服飾, 26, pp. 131-254.
- 72) 沈富子, 全惠淑 (1986). 文益新墓의 出土服飾. 服飾 10, pp. 81-90.
- 73) 박성실, 고부자 (1989). *앞의 책*, pp. 123-154.
- 74) 이은주, 조효숙, 하명은 (2005). *17세기의 무관 옷 이야기*. 안동: 국립안동대학교박물관, pp. 38-113.
- 75) 대전광역시·부산대학교 한국전통복식연구소. *앞의 책*, p. 226.
- 76) 이은주, 조효숙, 하명은. *앞의 책*, p. 30.
- 77) 대전광역시·부산대학교 한국전통복식연구소. *앞의 책*, pp. 31-32.
- 78) *위의 책*, pp. 31-32.
- 79) 광주민속박물관(편). *앞의 책*, pp. 85-86.
- 80) 안동대학교박물관(편). *앞의 책*, p. 226.
- 81) *위의 책*, p. 310.
- 82) 경기도박물관(편) (2004) *앞의 책*, pp. 142-147.
- 83) 고복남 (1993). 韓國傳統 服飾史研究. 서울: 一潮閣, pp. 352-354.
- 84) *위의 책*, pp. 262-263.
- 85) *위의 책*, p. 144.
- 86) 서울역사박물관(편). *앞의 책*, pp. 114-116.
- 87) *위의 책*, pp. 84-85.
- 88) *위의 책*, pp. 88-89.
- 89) 건국대학교박물관. *앞의 책*, p. 84.
- 90) 충주박물관(편). *앞의 책*, pp. 57-58.
- 91) 경기도박물관(편) (2007). *앞의 책*, pp. 214-215.
- 92) 대전광역시·부산대학교 한국전통복식연구소. *앞의 책*, p. 279.